

Diagnosis

OP-7 구연

| | |
|---|---|
| A | <p>교정치료가 용이한 환자와 어려운 환자를 구별하는 방법</p> <p>장 승은 목동 에 치과 병원</p> |
| <p>교정 치료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facial pattern 은 치료 계획 수립, 치료 과정의 난이도, 치료 결과, 치료 후 안정성 을 결정하는 주요 열쇠이다.</p> <p>이 연구는 이러한 환자의 facial pattern 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해줄 수 있는 indication 을 알아 보기 위해 시행되었다.</p> <p>초기 진단 시 100 명의 dolico facial pattern 환자와 100 명의 meso-brachy facial pattern 환자의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비교 분석하였다</p> <p>기존의 발표된 21 가지의 구별방법과 그 의 다양한 계속 방법을 사용 하여 각 indication 의 정확도를 알아보았으며 실제 치료 진행 과정을 통하여 각 pattern 의 특징이 나타나는 바를 관찰 하였다</p> <p>분석결과 각 pattern 간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mandibular arc, ramus-corpus angle 두가지였으며 다른 측정치는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 확실한 indication 이 되지 못했다</p> <p>또한 mandibular arc 의 경우에 기존에 제시된 standard 보다 다소 높은 값에서 기준이 형성 되었다</p> <p>이러한 결과는 mandible 의 intramatrix rotation 이 단순한 악골의 후방 회전을 나타내는 것 외에 치료에 대한 반응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p> | |

Appliance-Treatment

OP-8 구연

| | |
|---|--|
| A | <p>각종 간접접착술식에 의한 설측교정 치료종례 및 간접접착 브라켓 포지셔너 경희문</p> <p>경복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 교실</p> |
| <p>교정치료의 최대 목표중의 하나는 심미적 개선이지만 고정성 교정치료술식의 최대 단점중의 하나는 장치의 비심미성이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교정환자들은 이러한 교정 장치의 비심미성에 대한 불만을 호소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성인교정 환자의 경우에는 교정장치의 비심미성 때문에 교정치료 자체를 포기 하는 경우도 많다.</p> <p>직접 접착제의 개발과 더불어 이러한 고정성 교정장치물의 비심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무리 뛰어난 심미적인 고정성 교정장치라도 치아의 순측에 부착하여 치료할 경우에는 심미성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p> <p>이러한 순측 고정성 교정장치의 비심미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브라켓을 설측에 부착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교정의들은 설측브라켓을 이용하여 교정치료를 행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순측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진료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시야가 좁고 치료자체가 순측으로 하는 것 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치료가 어렵게 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부정확한 브라켓의 위치 때문이라 생각한다. 설측의 치관형태는 개인에 따라, 그리고 치아에 따라 다양성이 크므로 기성품의 브라켓 기저부는 개개치아의 치면과 잘 적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강내에서 직접 적절한 위치에 설측 브라켓을 부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설측교정 치료종례의 대부분은 간접접착 술식의 이용이 필수적이고 때로 브라켓 기저부도 각 치아에 맞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p> <p><u>따라서 본 연자는 연자가 고안하여 10년이상 사용하여온 set-up모형을 이용한 개인간접접착술식을 비롯한 각종 간접접착 술식으로 치료한 설측교정 치료종례들을 소개하고자 하며, 동시에 최근 연자가 개발한 간접접착 브라켓 포지셔너에 관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u></p> | |

OP-9 구연

| | |
|--|---|
| A | <p>III급 부정교합 치료에서 하악 제2대구치 발치의 효과</p> <p>이정민, 박영국, 정규립</p> <p>경희대학교 치과대학</p> |
| <p>이 연구는 III급 부정교합 치료시 하악 제2대구치를 발거한 증례에서 하악 제3대구치의 정상 맹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p> <p>치료전 Pantomogram 상에서 하악 제3대구치의 치배가 존재하고 치료과정이나 보정기간중 치근의 성장양태를 명확히 관찰할 수 있었으며, 기계적 교정장치의 완료시 얻어진 Pantomogram 상에서 맹출이 완료된 하악제2대구치 발치 55증례, 소구치 발치 214증례, 비발치 119증례를 대상으로 각각 맹출군과 미복군으로 분류하여 통계 처리하였다.</p> <p>분산분석에서 하악 제3대구치 맹출율은 하악 제2대구치 발치 증례에서 가장 높았으며, 비발치 증례에서 가장 낮았다.</p> <p>하악 제3대구치 맹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Dental age, 하악 제3대구치의 초기경사도, 하악 제3대구치맹출에 필요한 가용공극, 치근발육양태 등이었으며, 안모형태에 따라서는 Low Angle 의 증례가 High angle 의 증례보다 맹출을 및 정상맹출의 가능성이 높았다.</p> <p>이러한 결과는 하악 제3대구치의 상태를 관찰하여 하악 제2대구치의 발치시기를 결정함으로써 하악 제3대구치가 정상맹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p> | |